



# 정교회주보

제2537호  
2025년 8월 10일

한국 정교회 대구구 |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8길 43 | Tel.(02)362-6371 | Fax.(02)365-2698 | orthodoxkorea.org



마태오 제9주일  
성 라브렌티오스 대보제 순교자  
(제8조 • 조과 복음 9)

### 성 요한 크리소스톰 성찬예배

- 제8조 부활 찬양송 ..... 82
- 구세주 변모 축일 찬양송 .... 178
- 성당 찬양송
- 구세주 변모 축일 시기송 .... 178
- 사도경 : 고린토전 3,9~17 ..(봉)194
- 복음경 : 마태오 14,22~34 ... 113  
(기타는 보통 주일과 같음)

"여러분은 자신이 하느님의 성전이며 하  
느님의 성령께서 자기 안에 살아 계시다  
는 것을 모르십니까?"(고린토 전 3,16)

### 사진 설명

## 임금풀(바실리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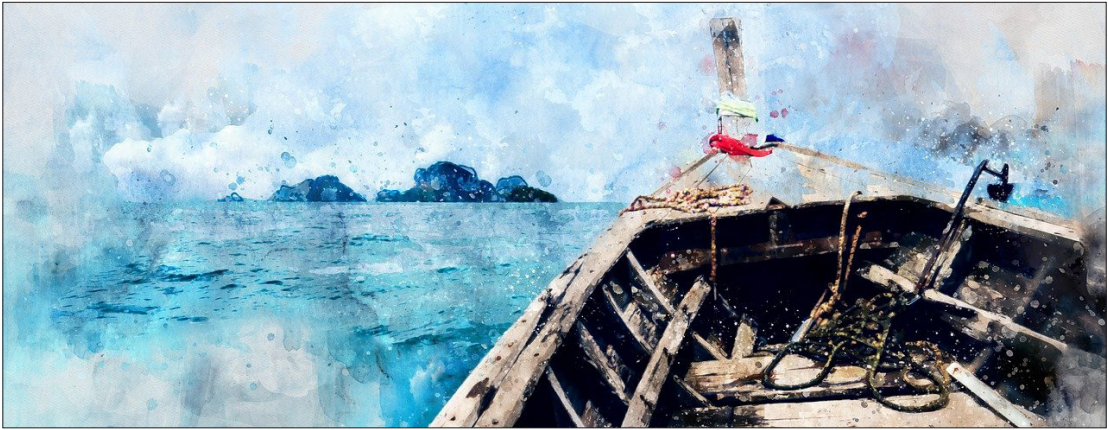
**바**실리꼬(사진 배경)는 단순한 식물을 넘어, 교회 전통 안에서 깊은 상징적 의미와 신성함을 지니고 있다.

전승에 의하면, 326년 성 콘스탄티노스 대제의 모친 성 엘레니 모후가 예루살렘을 순례하며 그리스도께서 달리셨던 십자가를 찾을 때, 독특한 향기를 내는 이 풀이 십자가가 묻혔던 곳에 피어있었다고 한다. 기적적인 발견 이후, 바실리꼬는 '십자가 현양 축일'(9월 14일) 예배를 통해 축성되어 신자들에게 나눠준다.

성수식에서 다발로 묶은 바실리꼬(사진 왼쪽)를 성수(聖水)에 담갔다가 성당이나 신자들, 특정한 장소 등에 뿌린다. 이렇게 뿌려지는 성수는 하느님의 은총과 축복을 전하는 행위이며, 그리스도의 부활과 영원한 생명을 상징한다. 또한 성스러운 향기는 하느님께로 향하는 백성들의 기도를 뜻하며, 믿음의 향기를 널리 퍼뜨린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 다시 한 번 신앙을 묻다

우종현 안토니오스 대신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기적, 그 이후의 시간'도 소중하다는 사실을 자주 느끼게 됩니다. 우리는 간절한 마음으로 하느님께 매달려, 때로는 놀라운 은총을 체험합니다. 질병이 치유되고, 깨어졌던 관계가 회복되고, 생각지도 못한 기회가 찾아오기도 합니다. 저 역시 몇 해 전 큰 병을 앓으면서 하느님의 자비와 위로가 얼마나 크고 깊은지 다시금 새겼던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절실했던 그 순간이 지나면 신앙의 감동이 오래가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평범한 일상이 다시 시작되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총을 점차 잊어버리고, 마치 스스로 이겨낸 것처럼 자만하거나, 또다시 크고 작은 현실의 무게 앞에서 신앙이 흔들리기도 합니다.

몇 년 전 한 조사에 따르면, 한국의 그리스도인 중 절반 가까이가 신앙의 침체를 경험했다고 합니다. 대부분이 위기 속에서는 하느님께 의지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다시 영적으로 메말라졌다고 고백했습니다.

왜 우리는 하느님의 은총을 체험하고도 흔들릴까요? 어쩌면 현실의 무게가 하느님의 자비보다 더 크게 느껴졌기 때문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진정한 신앙은 기적의 순간에만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기적 이후에도 하느님께 지속적으로

의지하는 관계, 그것이 참된 신앙의 모습입니다.

마태오 14장에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음에도 풍랑 속에서 두려움에 사로잡힌 제자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때 제자들에게 하신 "나다, 안심하여라. 겁낼 것 없다." (27절)라는 주님의 말씀에서 신앙의 본질을 깨닫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위로에 더욱 귀 기울여야 합니다. 신앙이란 바로 이 말씀을 삶의 풍랑 속에서 기억하고 붙드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종종 두려움에 눈이 가려져 인생의 풍랑 한가운데서 계시는 주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제자들이 탄 배가 흔들리는 동안, 예수님은 침묵하셨지만 결코 그들을 떠나시지 않았습니까. 주님께서 그 시간을 방관하신게 아니라, 함께 계시며 믿음을 키워주신 시간이었습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의 삶에 풍랑이 불고 있습니까? 걱정과 불안, 지치고 무너지는 삶의 고단함이 있다면, 다시 주님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나다. 안심하여라. 겁낼 것 없다.”

하느님께서 여러분을 더욱 단단히 붙들어주시고, 다시금 새로운 삶으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그 믿음이 우리 모두의 희망이 되길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 종말에 대한 두려움

아타나시아 봉사자 엮음

“**코** 곳에 무서운 지진이 일어나고 또 기근  
**스** 과 전염병도 휩쓸 것이며 하늘에서는  
무서운 일들과 굉장한 징조들이 나타날 것이  
다.”(루가 21,11)

예수님께서서는 루가복음 21,7-19에서 세상의  
종말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그 전에 앞서 일어  
나게 될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 되풀이해서 말  
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날 테러  
리스트들의 공격, 전쟁을 벌이고 있는 나라들,  
중동의 분쟁과 지구촌 곳곳의 홍수, 산불, 폭염  
등 환경과 생태계의 파괴에 따른 기상이변, 기  
후변화, 얼마 전까지 겪었던 전 지구적 전염병  
의 확산 등등을 바라보면서 이제 종말이 다가  
오는 것인가 하는 생각을 갖기도 합니다.

우리가 매일매일을 살아가며 죽음에 점점 가  
까워지는 것처럼, 이 세상 또한 점점 끝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언제 다시  
오실지 우리는 예측하거나 미리 알 수 없습니

다. 그렇다 할지라도, 믿고 실천하는 그리스도  
인으로서 우리의 책임과 역할은 주님께서 우리  
가 행하기를 바라시는 것을 함으로써 그저 “우  
리의 의무를 완전히 성취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삶을 산다는 것은 우리가 받은  
세례를 통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주  
님의 계명을 충실히 따르는 것입니다. 또한 우  
리의 삶에 주어진 목표를 이루기 위해 애쓰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리스도께서 우  
리를 위해 하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 주변에 있  
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받들어 섬기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이렇게 산다면, 우리는 종말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그저 하느님 나라에서 이루어질 ‘새로운 삶’의  
시작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따뜻한 사랑  
을 찾아볼 수 없게 될 것이다. 그러나 끝까지 참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마태오 24,12-13)

## 언제나 기억하십시오!

사랑하면서 당신이 뜻한 바를 행하십시오.

만일 침묵을 지킨다면, 사랑에서 우러나오는 침묵을 지키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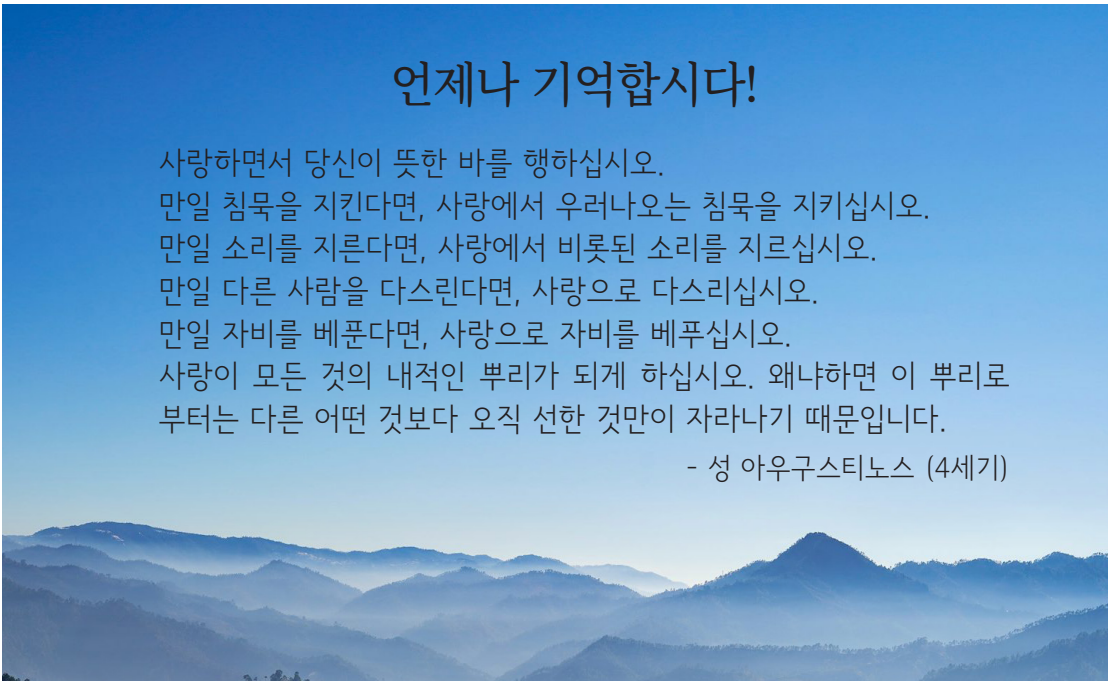
만일 소리를 지른다면, 사랑에서 비롯된 소리를 지르십시오.

만일 다른 사람을 다스린다면, 사랑으로 다스리십시오.

만일 자비를 베푸는다면, 사랑으로 자비를 베푸십시오.

사랑이 모든 것의 내적인 뿌리가 되게 하십시오. 왜냐하면 이 뿌리로  
부터는 다른 어떤 것보다 오직 선한 것만이 자라나기 때문입니다.

- 성 아우구스티노스 (4세기)





## 전주 성모 안식 성당 축일을 축하합니다

오는 금요일(8월 15일) 성모 안식 축일을 맞이하는 전주 성당의 정종혁 일라리온 신부님과 모든 신자에게 축하 인사를 전하며, 주님의 은총과 성모님의 중보로 항상 건강하고 나날이 영적 발전을 이루길 기원합니다.

### 주간 예배 안내

\* 8월 15일(금)  
**성모 안식 축일**  
오전 9시 : 조과 및 성찬예배  
광복절 영광식  
(지역 성당 예배는 해당 성당에 문의)



### ■ 성모 소기원 의식

성모 안식 축일을 앞두고 매일 저녁에 '성모 소기원 의식'을 드립니다. 각 성당 일정을 확인하여 참여합니다.

성당 참여가 어려운 분들은 '각 종예식서'를 이용하여 집에서 개인적으로 드릴 수 있습니다.

### 알림

#### ■ 대교구 초등부 여름 수련회 종료

지난 7월 28일-8월 3일에 춘천 성 보리스 성당에서 열렸던 초등부 여름 수련회가 무사히 마무리되었습니다. 참가한 학생들은 아침저녁 기도, 성서 공부, 강론, 저녁 묵상, 식사 시간을 통해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배웠습니다. 또한 물놀이, 아이스 스케이팅, 레크레이션, 다양한 놀이를 통해 즐겁게 보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하느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잘 간직하여 영적으로 많이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수련회 운영과 식사 준비를 위해 애써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 ■ 서울 성당 WCC 총무 방문

방한 중인 WCC(세계교회협의회)의 제리 필레이 총무가 오늘 서울 성당 성찬예배에 참여합니다. 환영합니다.

암브로시오스 대주교와 필레이 총무는 오늘 오후 3시에 연동교회(김상옥로 37)에서 '한반도 평화통일 남북공동기도주일 연합예배'(NCCK 주최)에 참여합니다. 관심있으신 분들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 ■ 에티오피아 공동체 행사

지난 주일(3일) 오후, 대교구는 국내 거주 에티오피아 공동체가 주관한 '아가페' 행사를 위해 서울 성당 선교회관을 장소로 제공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약 70명의 에티오피아인이 참석했습니다.

영성의 샘터



## 하늘나라의 상속자

이페레키오스 사부가 말했다.

“하늘나라에 대한 갈망이 촛불처럼 그대의 영혼 안에서 타고 있다면 그대가 곧 하늘나라의 상속자가 된다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아도 될 것이다.”